



천태산 산불(2005년 4월 발생)현장.



수령 1000년의 영국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223호).



미나리냉이와 대만흰나비



먹줄잠자리

충북 영동지역은 백두대간에 접한 전형적인 내륙 산간이다. 민주지산(1241m), 각호산(1204m), 삼도봉(1177m), 황악산(1114m) 등 1000m를 웃도는 산들이 산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천태산(天台山)은 715m로, 이 산간지대에 중간지대에 지나지 않지만, 기암괴석과 야기자기한 폭포와 유수한 불교문화재들을 품은 100대 명산(산림청 선정) 가운데 하나이다.

천태산 품속 영국사(寧國寺)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전략적 포석(布石)으로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국정사'라는 이름으로 중창한 후, 공민왕이 흥건적의 난을 피해 이곳에 머물며 '영국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고려사>에 나타난 공민왕의 파천길 이 영국사를 멀리 벗어나 있어서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

주차장에 내려 영국사까지는 1.5km, 걸어가기에 딱 좋은 산길이다. 산길에서 만나는 삼단 폭포는 영국사의 명당수로서, 호탄천의 상류를 이룬다. 용추폭포(龍湫瀑布)라는 옛 이름을 당국에서 생각 없이 '삼단폭포'로 고쳐 놓았다. '용추'라는 이름에는 물을 용신(龍神)으로 섬겨온 옛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깊은 배려가 깃들여 있다. 지금이라도 옛 이름을 되찾아 줄 일이다.

망탕봉은 천태산의 화강암 암맥이 뿔어 내려와 이루어 놓은 거대한 암괴(巖塊)다. 영국사의 안산이자 좌청룡인 망탕봉이 없으면 영국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풀이 된다. 이 봉우리에 세워진 망탕은 바로 이 요처를 지키기 위해 세운 비보탑이다.

망탕봉에서 고개를 넘어 주위를 돌아보면 산불 흔적이 곳곳에 시커멓게 남아있다. 지난해 4월 천태산 남쪽 가선리 아산에서 방화성 실패로 일어난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북상하여 다음날 영국사 쪽으로 옮겨 붙었다. 헬기와 소방차를 비롯한 각종 소방장비를 동원해 영국사를 사수한 결과, 다행히 50m 전방에서 기적적으로 산불이 잡혔다.

망탕봉을 내려오면 천연기념물 제223호인 은행나무를 만난다. 천년 가까운 수령에도 불구하고 나무 높이가 31m, 가슴 높이의 둘레 6m로 청년같은 노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서쪽까지는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려 다시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4년 전 새로 지은 만세루를 지나 계단을 올라서면 마당에는 삼층석탑과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충청대에서 주변을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삼성각 뒤쪽 절터를 본래의 대웅전 터로 추정하고 있다.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청자기와는 일부가 소장하고 있는 개성 만월대 출토 청자기와 이후 남한에서 처음 발굴된 청자기와로 밝혀졌고, 진흥으로 만든 소조부도(彫造浮屠)도 전에 없던 것이다. 이 두 유물이 영국사의 전성시대를 무언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웅전 마당에는 절피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곱빛나무 등이 자리하고 있으나 수령이 모두 50년 미만이다. 때마침 절피나무에서는 연분홍 꽃잎이 꽃보라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다.

화장실 옆에는 분리되지 않은 채 비 병, 1회용 컵, 종이상자, 비닐 등이 한데 쌓여있다. 영국사는 호탄천 최상류 지역이라서 쓰레기를 함부로 태워서 문연도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수고스럽지만 절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영동군은 쓰레기물 제때에 수거해야 할 것이다.

절 뒤로 깎아내려 세워진 습지가 있다. 미나리냉이, 미나리아재비꽃, 꿀풀들이 푸듯하게 어울려 피

빼어난 풍광 곳곳에 산불 흔적 안타까워



망탕(사건)이 세워져 있는 망탕봉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산불의 흔적이 천태산 곳곳에 남아있다. 망탕봉이 없으면 영국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풀이 된다.

요처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암괴 봉우리에 망탕 세워
삼성각 주변서 출토된 청자기와 등 전성시대 짐작
산불로 숲·식생 파괴...원각국사탑비 풍화 우려

었다. 만발한 유채화와 미나리냉이 등의 풀꽃들이 은빛 나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다. 나비들은 대개 여름 안개가 시작되는 5월 중에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봄 나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른벌레로 겨울을 난 나비들과 서늘해 나온 여름 나비까지 볼 수 있다.

원각국사탑비(보물 제534호)의 비신은 점판암이다. 점판암으로 비신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점판암은 대개 세립질 점토와 일부 모래 또는 화산면진 등으로 구성된 퇴적암으로 분류된다. 바리의 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원석에서 쉽게 떨어지고, 재질이 부드러워 조각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풍화작용에 약한 결점이 있다.

원각국사비 주위로 도래수들이 늘려버린 것이다. 천태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골산인 까닭에 소나무들이 숲을 우점하고 있다. 더러는 바위틈에서 어렵게 자라다보니 분재를 많이 붙여 있다. 그래서 일부 불지각한 이들이 눈독을 들였다가 몰래 반출해 가기도 한다.

부도 건너편 능선은 도산통이다. 도산통이란 마사토로 이루어진 구릉이나 산을 가리키는데, 안동의 도산면 지역에 흔하기 때문에 그 지명에서 따왔다. 마사토는 결이 거친 화강암이 오랜 풍화작용으로 부스러기가 된 풍화모재층(saprolite)이다. 수분이나 토양분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척박하다. 그래서 오랜 세월 소나무들이 차지해 왔는데, 지난 번 산불로 푸른 숲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마침 영동군청 발주로 산림조합에서 산벚나무와 단풍나무를 심고 있었다. 척박한 토양에서 이들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활착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원각국사길 쪽으로는 3년생 소나무를 심어 복원하고, 영국사 절 주변으로는 은행나무를 심었다.

숲 바닥에는 산불 피해로 등나무와 노루발 등 겨우 몇 종의 초본들만 꽃을 피우고 있다. 주변 개울에서는 때마침 쇠족범잠자리도 우회를 하고 있다. 쇠족범잠자리는 연못이나 저수지보다 그늘진 개울을 좋아한다.

습지와 마을 골짜기에 커 큰 암버들이 서 있다. 이름에 '버들'이 들어가 있지만, 사시나무 종류에 속한다. 개화기에 유럽에서 들어와 '구주백양(歐洲白楊)' 또는 '포플러(Populus)'라고 불렀다. 40~50년 전 나무상자나 성냥개비를 만드는 경제목으로 많이 심었고, 시골 도로변에 가로수로도 많이 심었다.

영국사 주변에서 조류상이 빈약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해 산불의 영향일 것이다. 불에 탄 나무엔 새들이 둥지를 틀지 않고, 산불로 숲이 사라진 곳에 새들이 깃들 리 없다. 산불의 피해가 비교적 덜 한 북동사면의 숲에서 겨우 검은등딱지 소리 들린다.

도가길로 넘어가는 길 주변으로는 다양한 활엽수들이 지난 해 화마를 피해서 다행히 건강한 숲을 이루고 있다. 활엽수로는 말채나무, 느티나무, 떡갈나무, 고로쇠, 노린재나무, 느릅나무, 검쟁나무, 신나무, 단풍나무, 산딸나무, 조릿대, 개웃나무, 뽕나무, 노간주, 팥배나무, 비목, 철쭉, 진달래, 벚꽃나무, 조릿대 등이 보인다.

그러나, 인적 드문 길이라 가끔 나무도둑이 출몰하기도 한다. 때마침 물지각한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 조팝나무를 몰래 캐다가 영국사 신도에게 발각되어 경찰에게 곤욕을 치루고 있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http://ad.buddhapia.com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입니다.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거나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부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 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부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부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대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환경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셉을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